

# 책의 본질과 시원을 찾아서

〈책의 향과 기〉 이모저모

전시회장에는 단 한권의 책도 없었다.

책을 펴고 있는 사각의 액자와 도자기와 화첩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책'이라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책은 작품들의 몸 속에서 뜨겁게 뛰고 있는 심장이었다. 책으로 '화'(化)하고자 하는 이들의 몸짓은 전시회장의 공기를 팽팽하게 긴장시키고 있었다.

액자 속에 담긴 활자들과 그림들은 서로를 향해 끝없는 구애의 시선을 던지면서도, 서로의 접근을 한치도 허용하지 않는 기묘한 앙상블을 연출하고 있었다.

중견화가 여섯명이 한 자리에 모여

책과 문자에 숨겨진 '비의'를

탐색한 〈책의 향과 기〉전이

지난 3월 14일에서 27일까지

갤러리 아트사이드에서 열렸다.

고영훈, 오수환, 윤광조, 김상구, 김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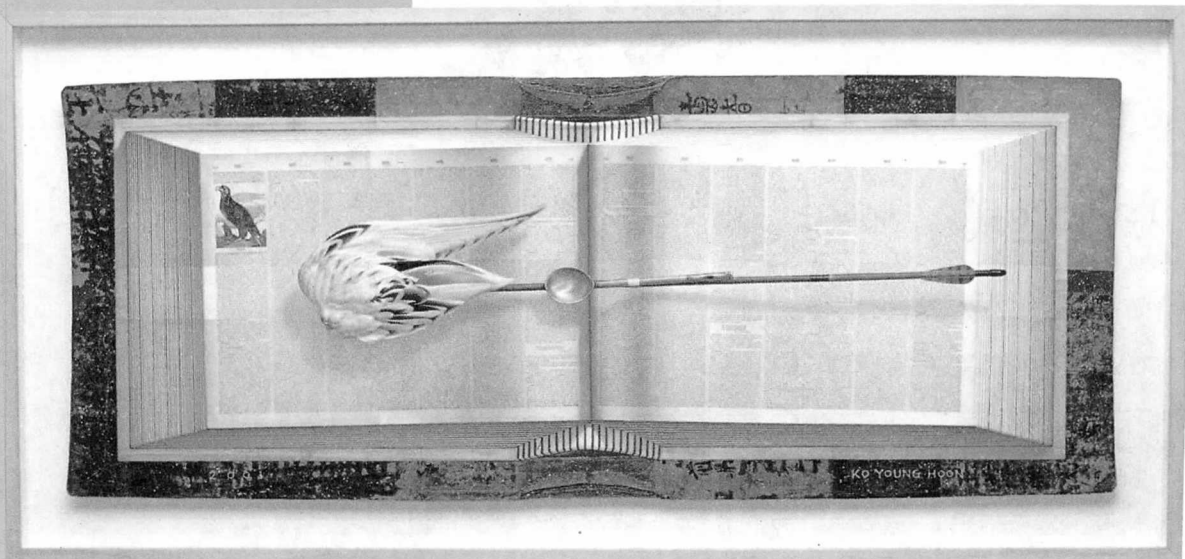
이월중 등 중진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극사실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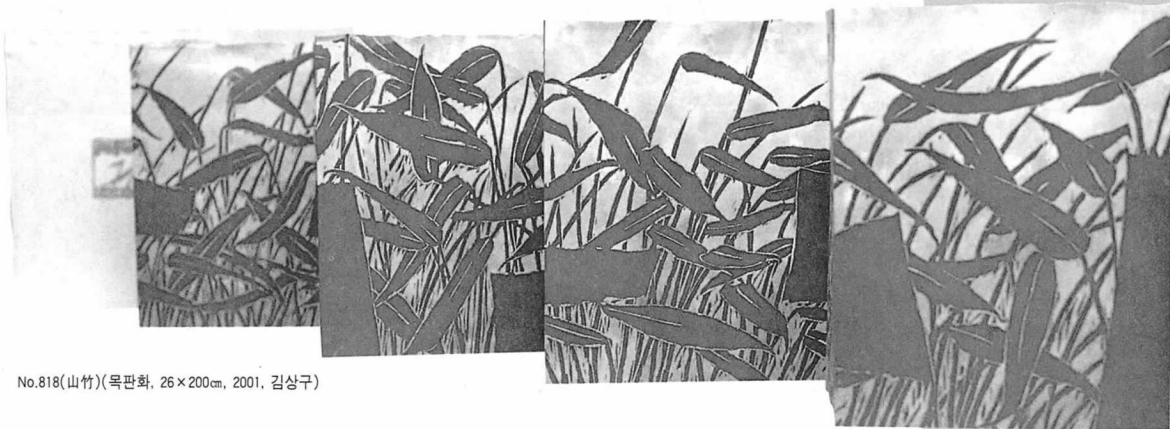
추상, 도자기, 목판화, 동양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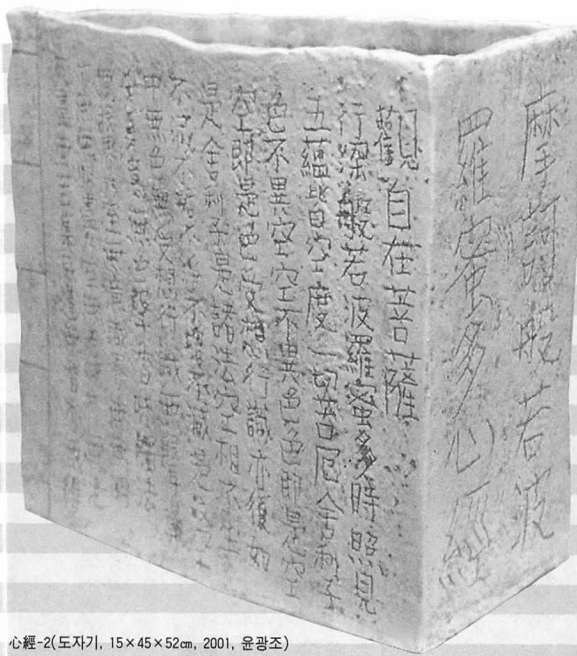
혼불(혼합재료, 66×66cm, 2001, 고영훈)



불사조(혼합재료, 47×120cm, 2001, 고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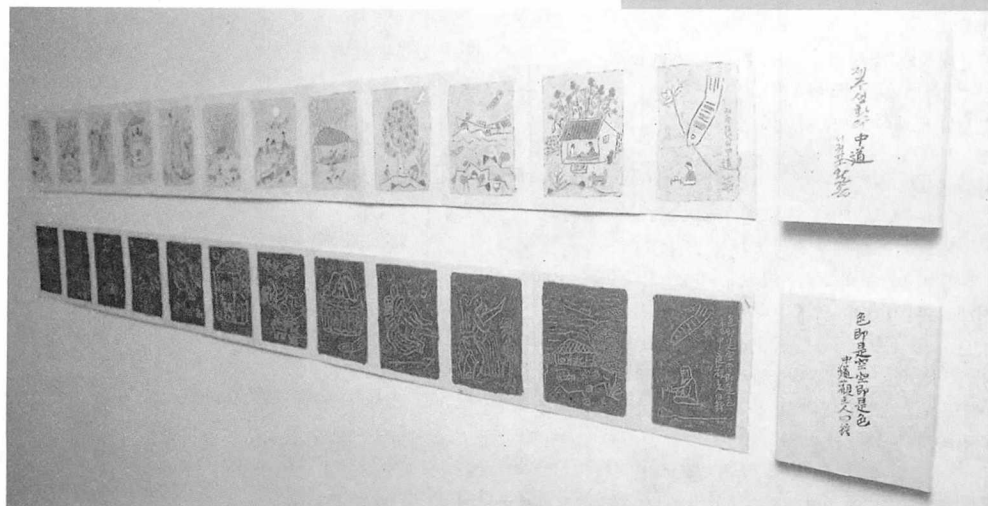


No.818(山竹)(목판화, 26×200cm, 2001, 김상구)



心經-2(도자기, 15×45×52cm, 2001, 윤광조)

제주생활의 中道(한지에 혼합, 18×166cm, 2001, 이왈중, 위)  
 색즉시공공즉시색(한지에 혼합, 18×167cm, 2001, 이왈중, 아래)



다양한 방법으로 '책의 본질'을 암시하고, 수많은 상징을 탐색하는 작품들이 선보였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책은 어떤 생각이나 사실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한 물건이다.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한 물건'이라는 말에 유념한다면, 인간은 이미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그리면서 책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에게 익숙한 책의 모습 이전의, 그러니까 책의 '시원'을 찾아가는 작업이었고, 전시회에 걸린 모든 작품은 책이었던 셈이다. 이 전시회에 참가한 이들 작업의 공통점은, 책이 지닌 '정신성'을 다시 찾는 것으로 모아진다. 디지털 시대를 정면으로 통과하는 책의 힘, 그것은 바로 책이 가진 '정신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번 전시회에 걸린 작품들은 응변하고 있었다.

— 최갑수 글 · 김경록 사진